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 포인트 인하

- 브라질 중앙은행은 '09년 1월 20~21일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에서 기존의 13.75% 기준금리에서 무려 1% 포인트나 인하한 12.75%의 기준금리 적용을 결정
 - 이번의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브라질 국내경기가 좋지 않게 되고 일반시장물가(IGP-M) 등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자 경기부양을 위한 브라질 정부와 재계 및 노동계의 기준금리 인하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설명

-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2005년 7월 19.75%를 기록한 이후 18차례 연속 인하를 기록하다 2년만인 2007년 9월 11.25%에서 인하세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08년 3월까지 11.25%에서 동결상태를 유지
 - 이후 과열된 브라질 국내경기의 인플레이 우려로 '08년 4월이후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13.75%까지 기록하였다가, '08년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수준을 동결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 , 연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	16.50	16.50	16.25	16.00	16.00	16.00	16.00	16.00	16.25	16.75	17.25	17.75
2005	18.25	18.75	19.25	19.50	19.75	19.75	19.75	19.75	19.50	19.00	18.50	18.00
2006	17.25	-	16.50	15.75	15.25	-	14.75	14.25	-	13.75	13.25	-
2007	13.00	-	12.75	12.50	-	12.00	11.50	-	11.25	11.25	-	11.25
2008	11.25	-	11.25	11.75	-	12.25	13.00	-	13.75	-	-	-
2009	12.75											

자료출처 : 브라질 중앙은행

- 이러한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브라질내 주요 은행들은 대출상품 금리인하 연이어 발표
 - 브라질 1위 은행은 Itau와 Uni Banco는 26일부터 금리하락을 반영시켜 개인 대출(자동할부대출)의 경우 7.09%에서 7.01%로 인하하고, 기업의 특별수표 금리는 8.95%에서 8.87%로 인하
 - 브라질 최대 국영상업은행인 Banco do Brasil도 특별수표 최고금리를 7.99%에서 7.91%로, 기업수표는 7.81%로 인하하였으며, 3위 은행인 Bradesco 역시 약 10개의 대출상품의 금리를 평균 0.08%씩 인하
- 한편, 이러한 중앙은행의 1% 포인트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재계와 노동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의 대응책으로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
 -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업연맹(Fiesp)과 상업연맹(Fecomercio) 그리고 포르사 신디칼(Forca Sindical) 등의 노조조직들은 기준금리 인하촉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의 12.75%인 기준금리 수준을 8%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 실제 브라질의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최근 12개월간 이자소득세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제외)는 이러한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약 7.8% 수준으로 헝가리(5.8%), 아르헨티나(5.1%), 중국(2.8%), 호주(2.7%) 등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

<상파울루 사무소 제공>